

# 12년간 저소득층의 새 출발을 돕다

글 김혜진 작가 / 사진 민영주 조단스튜디오



권혜경(왼쪽 다섯 번째) 실장은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논산지역자활센터 동료들과 힘을 모아왔다. 논산지역자활센터 앞에서 센터장(오른쪽 세 번째), 동료들과 함께.

※ 권혜경 : 1971년 논산에서 1남2녀의 둘째이자 차녀로 출생. 대전여고, 중경공업전문대 세무·회계학과, 한민대 사회복지학과, 건양대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박사). 보험회사 등에서 일하다가 2008년부터 논산지역자활센터 근무, 현재 실장. 논산시장·충남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년 아산상 복지실천상 수상. 남편(한기찬·50)과의 사이에 1남1녀.

“몇 년 전만 해도 논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형광) 방문자 중에선 40대가 가장 젊었는데, 이젠 20대도 많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열여덟 살 수급자가 센터로 찾아왔어요. 집에서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싶어요.”

권혜경(49) 논산지역자활센터 실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유독 마음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녀도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충남 논산에서 교사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의 1남2녀 중 둘째이자 차녀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땐 알지 못했다. 대전여고를 거쳐 1992년 중경공업전문대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같은 과에 다니던 지금의 남편(50·한기찬)과 결혼한 후 중소기업체와 보험회사 등에 취업, 일반사무와 자산 컨설팅 등을 담당했다.

그러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편의점 사업의 운영이 안 되면서 순식간에 생활이 곤두박질쳤다. 빚에 허덕이면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여러 지역의 사글세방을 전전했다.

그런데 회한했다. 어려운 순간마다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임신했을 때 보증금 없이 월 10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준 집주인, 터무니없이 월세를 깎아달라는 그녀에게 자기도 신히 때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너그러운 미소를 보여준 아주머니, 어려운 경제사정을 듣고 깨끗한 아이 옷들을 모아다 준 유치원의 학부모 등.

## 경험 없이 시작한 새로운 도전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녀는 당시의 도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려울 때 받은 사랑을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돌려드려야겠다’고.

서른일곱 살이던 2008년 어느 날,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들춰본 생활정보지에서 구인광고를 봤다. 논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었다.

정성을 담아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40분 내내 간절한 눈빛으로 면접관을 향해 이야기했다. “뽕아 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고. 그 눈빛을 읽은 인사 담당자는 그녀를 선택했고, 그렇게 그녀는 사회복지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비로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이나 업무 경력이 전무했다. 그러나 평소 봉사에 대한 관심과 과거 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취약계층을 교육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자활기업인 ‘회오리세차’를 방문해 참여자들과 함께한 권혜경 실장. 회오리세차장 원편의 셀프세차장은 아산재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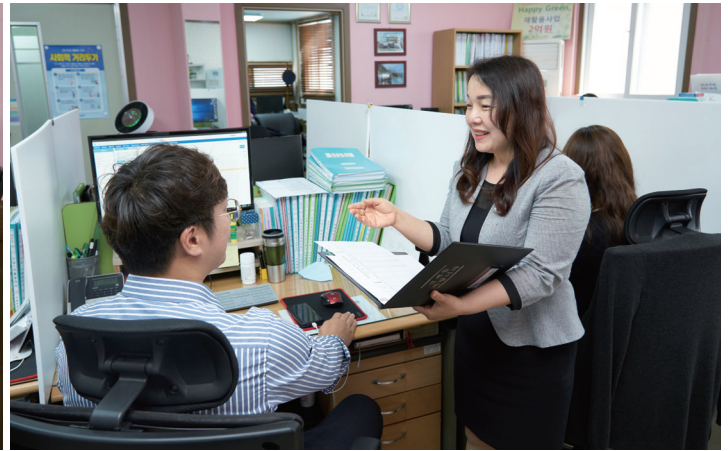
자활센터 업무는 새로운 도전이자 꼭 해보고 싶은 경험이었다.

2008년 2월부터 그녀의 일터가 된 논산지역자활센터는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2004년 논산자활후견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지금의 논산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김형광 센터장 아래 권혜경 실장을 포함해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녀가 입사 후 처음 맡은 일은 영농 사업과 회계였다. 2년 뒤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로 근로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업체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카페·반찬·광고 사업단 등 매년 평균 6~8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관리하면서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근로취약계층 약 91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업무 부적응이나 사회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활근로 참





권혜경 실장은 현재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재가장기요양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논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모습.

여자들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상담·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안정되게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수급자의 경우, 수급생활에 안주하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술을 자주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우울증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치킨과 닭갈비, 누룽지 판매와 홍보물 제작, 카페 운영, 폐자원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무기력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를 그녀는 자주 목격했다.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면서 어렵게 살던 분이 있었어요. 삶이 막막할 때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뒤 유치원 선생님이 됐어요. 나중에는 직업군인과 재혼해 수급자에서 벗어나기까지 했죠.”

## 자활기업 창업의 바탕 마련

자활근로사업단은 5년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을 종료한다. 논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했던 일곱 개 사업단 중 다섯 곳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면서 15명의 저

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 자활기업인 반석건축인테리어는 집수리와 인테리어, 회오리세차는 0.1리터라는 적은 물로 차량 세차, 참누룽지는 누룽지 판매, 치밥치킨은 치킨 판매, 논산주거복지센터는 도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든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활기업이 되기 위해선 매출이 사업비의 30%를 넘어야 한다.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자활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경영을 제대로 못 하는데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권혜경 실장은 2011년부터 퇴근 뒤 건양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산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기관이지만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업단 운영을 하려면 경영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배운 경영 마인드를 현장에 접목시켰어요. 조직을 개편하고,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바꿔나갔죠. 그랬더니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왔어요.”

자활기업 창업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공헌을 해온 그녀는 또한 창업한 자활기업들이 논산지역자활센터의 관리에서 벗어난 후에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이 될 만한 각종 공모전에 참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2015년에는 자활기업인 회오리세차가 아산재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중 취약계층 자립프로그램에 선정돼 셀프세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셀프 세차장은 아산재

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논산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중심축

권혜경 실장은 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 논산 YWCA가정폭력상담소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분과장과 대표실장,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녀는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해야 자원 연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자활 대상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분과 위원 중에 정신건강 전문가가 계셔서 그분에게 의뢰해 상담을 받게 해드렸죠. 상담을 통해 상태가 호전돼 자활기업 대표로 일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녀는 자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과 학위취득 프로그램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40여 명이 바리스타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운전면허, 굴삭기 및 지게차 면허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0여 명이 취업하는 데 직간접적인 힘을 보탰다.

그녀 또한 자활 대상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심리상담사와 대화기법 상담사, 정보처리기능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 자격증 14개를 취득했다. 또 신용회복상담사와 자활경영인 리더십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수료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 깊어지는 걸 느껴요.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려면 많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많이 나눌 수 있죠."

논산지역자활센터의 실장으로서 9개의 사업단과 재가장기요양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그녀는 직원들과는 수평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외부교육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그녀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려는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2008년부터 12년간 논산 지역의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힘써온 권혜경 실장. 그간의 사회복지 공로로 그녀는 2012년 충남논산시장 표창, 2015년 충남도지사 표창,



자활근로사업단인 '오늘카페사업단'을 방문해 참여자들과 함께한 권혜경 실장(위의 사진 왼쪽 끝). 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분과장을 맡았을 때 위기대상자 통합사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아래사진 중앙).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제31회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논산의 사회복지계 동료들은 그녀를 두고 "항상 신선한 자극을 주는 동료"라면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논산지역의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개인 시간을 들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실현해왔다. 직장 내에서도 후배들로부터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권혜경 실장을 통해 논산지역자활센터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현재 센터 소속인 15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권 실장의 노력을 통해 많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려주었다. 🍷